

# 써비코 그래피 소식

## 써비코그래피 연구회지

통권 제4호 / 계간지 / 발행인 : 남상륜 / 편집장 : 남계현  
발행처 : 써비코그래피 연구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1 계유빌딩 2층  
☎ (02) 539-0191 E-mail : NTLAsia@chollian.net  
Homepage : <http://www.cervicography.co.kr>

2000. 01 VOL. 4

CERVICOGRAPHY NEWS

권두언

## 새 천년에 갖추어야 할 것들

새 천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여러 많은 나라에서 2000년을 맞는 행사를 한다고 야단법석을 떠는 모습들을 여러 분은 보셨습니다.

새 천년에는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주시대가 열려 달나라에 신희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은하를 탐색하게도 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암과 AIDS가 정복되고 노화현상을 억제하여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공상소설에서나 있음직한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첨단과학 문명이 극치를 이루게 되는 반면 인간의 마음은 가장 가난한 시기가 될 것이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새 천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새 사람의 조건에 대하여 KBS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두 번째가 따뜻한 인간애이고 세 번째가 전문성이었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를 시작하면서 전문성을 개발하고 프로정신을 십분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따뜻한 인간애를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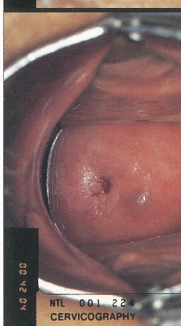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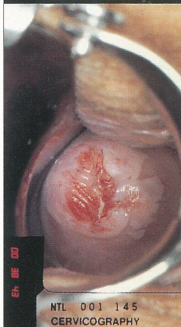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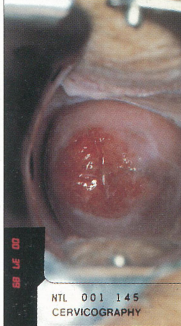
그 동안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나왔던 불평은 대부분 전문성이 인간애를 앞섰기에 나왔던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편안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동안 열정을 갖고 환자를 돌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열정보다는 결과를 갖고 우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자에 대한 열정에다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과정을 덧붙여야 합니다. 어떤 시술을 할 때에 그것에 대한 과정과 결과, 그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비록 하찮은 것이더라도 빠뜨리지 않는 세심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찬란한 미래를 향해 새롭게 힘찬 출발을 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갈등을 극복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충남대학병원 남상륜 교수



# 평가 판독지(Evaluation Report forms)의 과거와 현재 및 PO의 의미 ①

## 1차 판독 결과지 (1981 시작 - March 1987)

1) 4대 항목에 음성(negative), 불만족(unsatisfactory), 기술적 오류(Technically Defective), 의심(suspicious)으로 나누고 있는데 불만족 항목이 문제다. 불만족 항목의 정의는 질 확대경의 정의와 같이 변형대(transformation zone)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였는데, 자궁경부 확대촬영술상 변형대가 보이지 않지만 기술적으로 오류가 없어서 외경부(exocervix)에 병변이 없으면 음성으로 선별 검사상 판정할 수 있다. 보이는 외경부의 병변이 없음을 이의 없이 판정할 수 있는데도 불만족 항목으로 구분하여, 자궁경부 확대촬영술상 불만족군의 비율이 증가하게 만들었다.

2) 양성 소견을 의심(suspicious)으로 표현하였는데 이에 상응하는 소견으로 미성숙 편평화생(immature squamous metaplasia)을 넣은 것이 문제점이었다. 미성숙 편평화생과 자궁경부 상피내종양의 감별이 쉽지는 않고, 모두 아세트 백색상피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 소견을 양성으로 넣어 위양성율을 높인 것이 문제다.

3) 기타 검사 부위로 질, 외음부, 항문 등의 기술 부위가 없다.

1차 판독 결과지

## 2차 판독 결과지 (April 1987 - April 1988)

1) 1차 판독지와 분류에서 크게 변한 것은 없고, 음성군과 불만족군에서 세분화하여 변형대가 안 보이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분류하였으며, 2차 판독에서도 1차 판독지의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

## 3차 판독 결과지

(May 1988 - September 1989)

- 1) 4대 항목을 3대 항목으로 줄이고, 기존의 불만족군(unsatisfactory)을 삭제하였다.
- 2) 미성숙 편평화생을 의심(suspicious)군에서 음성군으로 이동하였다.
- 3) 의심이 나는 사소한 병변(trivial change of doubtful significance)을 의심군(후에 양성으로 바뀔)에 넣었으면서도 질 확대경은 권하지 않고 6~12개월 뒤 다시 찍도록 하여 결과 판정시 양성 소견에 따른 통계적 처리에 문제를 안고 있다.
- 4) 처음으로 기타란을 신설하여 질, 외음부, 항문, 남성음경에 대한 기술을 할 수 있게 했다.



순천향대학병원 남계현 부교수

# | 증례 | Carcinoma in situ 자궁경부 확대촬영술 P2 : 1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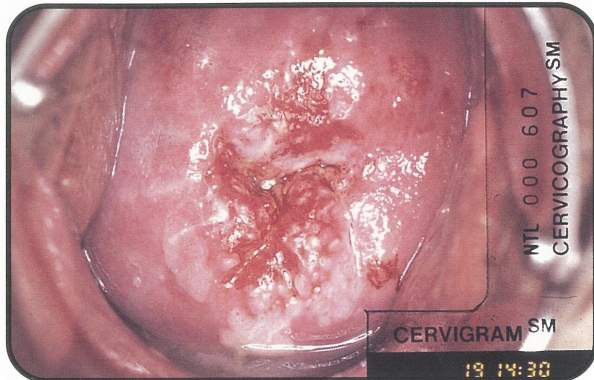


Fig.1 : Cervi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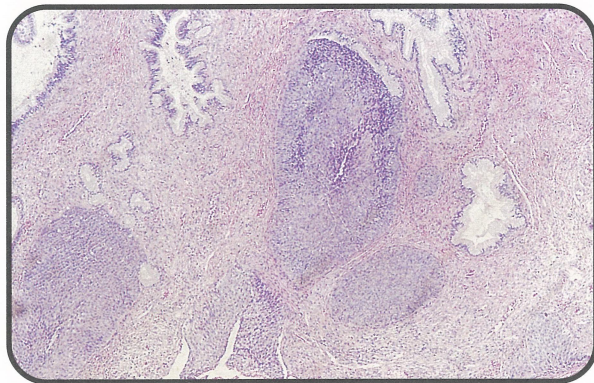


Fig.2 : Histology(conization)

■ 환자 이름 : 이○○

■ Age : 31

■ 산과력 : 1 - 0 - 1 - 1

■ 경희의대 산부인과

Cytology : ASCUS

Cervigram : P2 (at 1 to 7 o'clock : acetowhite epithelium, punctation) (Fig.1)

Colposcopic examination : abnormal blood vessels at 1 and 5 o'clock direction. r/o microinvasive carcinoma

HPV : negative

Cold knife conization : CIS with glandular extension (Fig.2)

Surgery : vaginal hysterectomy

**ASCUS** (atypical squamous cells of undetermined significance)란 관찰되는 비정형세포가 The Bethesda System(TBS)의 어느 범주에도 맞지 않을 때 사용하며, 이것은 단순한 비정형(atypia)이나 과거의 Class II가 아니며, TBS에서는 이것을 반응성변화(favor reactive change)인지 편평 상피내 병변(favor intraepithelial lesion)에 속하는지 진단을 같이 적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atypical smear 환자의 효과적인 처치 방법으로는 반복 세포 검사(repeat Pap smear), 반복 세포 검사 및 자궁경부 확대 촬영 검사, 질확대경 검사, 그리고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등이 있다.

이 중 질확대경 검사는 검사자의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며 긴 검사 시간 등으로 인하여 선별 검사(screening)로서는 적합치 않으며 반복 세포 검사는 위음성율이 높으므로 효율성이 낮다. 실제로 Pap smear의 위음성율은 15~50%로 보고되고 있으며 주된 원인은 불충분한 검체 채취가 33~68%를 차지하며 이 외에도 관찰자의 실수 혹은 정도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검사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궁경부 확대촬영 검사를 병용할 경우 세포진 검사의 낮은 민감도와 위음성율을 상당히 보완할 수 있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가장 유용한 선별 검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경희대학병원 이선경 교수

# Cervigram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언

**자궁경부종양의** 조기진단에서 자궁경부 확대촬영술은 세포진 검사의 높은 위양성율을 보완하여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높은 위양성율이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자궁경부종양의 조기 진단을 위하여 세포진과 자궁경부 확대촬영술을 이용하는 많은 의사들은 이러한 진단 방법들의 단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도 단점의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데는 매우 인색한 듯하다. 아무리 훌륭한 진단 방법이라도 검사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는 법이다.

세포진 검사에서 검사 전 최소한 48시간 동안은 douche를 하지 말 것과 최소 1주 동안은 질내 좌약의 사용 금지 그리고 하루 전에는 성교를 하지 말 것 등의 환자가 지켜야 할 기본교육을 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세포진은 위양성이 높다고 지적하듯이 자궁경부 확대촬영술에서도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위양성만 너무 높다고 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

다. 물론 자궁경부에 초산을 30초 이상 충분히 도포한 후 질확대경진 방식대로 초산의 반응 정도와 반응 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병변을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위양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미 3회에 걸쳐 연재된 좋은 cervigram 촬영하는 방법의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서 단순히 위양성이 많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더 신선한 초산의 사용과 최소 30초 이상의 초산도포 그리고 가능하면 동적화한 2장의 서로 다른 사진의 촬영과 점액 제거 및 출혈의 최소화에 신경을 써서 자궁경부 확대촬영술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되겠다.



경북대학병원 조영래 교수

## 게 시 판

### 제5차 Tutorial of cervicography evaluator 개최

지난 10월 9일 Dr. Michael Champion을 초청 연자로 하는 evaluator교육과정은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 써비코그래피 연구회 모임 개최

써비코그래피 연구회 모임이 '99년 10월 9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 대구 지역 cervicography provider 좌담회 개최

지난 11월 11일 경북대학교병원 강당에서 약

80명의 대구·경북 지역의 산부인과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cervicography 사용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연자는 영남대 이승호 교수와 계명대 이태성 교수, 경북대 조영래 교수가 맡았다.

### 써비코그래피 홈페이지 제작

써비코그래피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되었다. 홈페이지 주소 : www.cervicography.co.kr.

### 연구원 동정

① 전남대 최호선 교수가 '99년 11월 7일~11일 부에이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제10차 국제 자

궁경부 병리·콜포스코피 학회에서 'Comparison of cytology, cervicography and human papillomavirus DNA detection in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and cancer' 라는 주제로 논문 발표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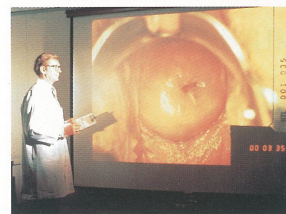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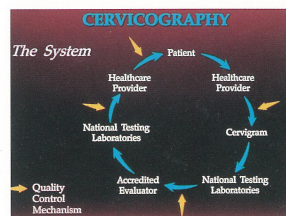
② 남상륜, 이승호, 이태성, 조영래, 안웅식 교수가 지난 9월 27일~10월 1일 로마에서 열린 제 7차 국제 부인암학회에 참석하였다.

③ 영남대 이승호 교수가 지난 10월 18~21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9차 국제 폐경학회에 참석하였다.

## 자궁경부암을 발견하는 최신의 검사법 자궁경부확대촬영검사법 CERVICOGRAPHY<sup>SM</sup>



- 미국 FDA,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식품의약품 안전본부의 승인을 받고 임상증명된 국내 유일의 CERVISCOPE<sup>®</sup> 의료기기입니다.



- 엄격한 Quality Control Mechanism을 통한 CERVICOGRAPHY<sup>SM</sup>의 높은 정확도와 객관성을 유지합니다.
- 객관적인 영상자료(CERVIGRAM<sup>SM</sup> 사진)를 제공합니다.
- CERVICOGRAPHY<sup>SM</sup> 전문판독 Licence를 받은 한국 써비코그래피 연구회 소속 부인종양 전문의에 의한 세계적 수준의 판독시스템입니다.
- 세계적으로 표준화되고 임상증명된 Evaluation Report 양식을 사용하여 정확한 병변분류에 따른 판독시스템입니다.

◆ Note: 한국써비코그래피 연구회에서는 써비코그래피 임상관련 질의사항 상담을 환영합니다. (Web site: WWW.Cervicography.co.kr)



**NTL** National Testing Lab Asia  
(주) 내쇼날 테스팅 랩 아시아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1 계유빌딩2층  
Tel: 539-0191 ~2 Fax: 3452-7256

E-mail: NTLAsia@chollian.net  
Web site: WWW.NTLAsia.co.kr

한국써비코그래피연구회  
WWW.Cervicography.co.kr